特輯 우리나라 私立大學, 무엇이 문제인가

私立大學의 發展方向

孫 承 堯
(亞洲大 機械工學科)

1. 私立大學의 現住所—무엇이 問題인가?

民主化, 自律化, 통일 논의, 參與 擴大 그리고 權利의 爭取를 위한 鬪爭 등등으로 熔岩처럼 분출되어 激浪처럼 울렁대고 있는 오늘의 大學街는 그 原因과 背景이 어디에 있건 이 時代를 살고 있는 우리 大學人들에게는 수 많은 示唆와 問題를 던져주고 있으며, 좋건 싫건간에 피할 수 없는 試練이며 挑戰이기에 이와 더불어 살면서 새로운 變化와 發展의 계기로 삼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그중에서도 私立大學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總·學長 선출에 있어서의 직선 또는 선출 과정에서 學生, 職員勞組의 참여 요구와 학생 등록금의 동결 또는 등결 요구는 그동안 大學이 運營되어 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急進的인 變化임에 틀림없다.

1989 학년도 登錄金 凍結運動이 전국 각 大學으로 파급되면서 대부분의 大學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사태에 이르러 '89 학년도 대학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에 急制動이 걸리게 되었다. 國立大學은 國庫 豫算編成이라서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거의 전적으로 大學 財政의 財源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私立大學들은 물가 상승과 인플레, 교수 확충과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학생 복지 관련 시설을 위하여 막대한 財政 所要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등록금 동결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다. 民主化를 외치는 온갖 목소리와 때로는 과격하다고 생각되는 시위들과 學事 運營을 마비시키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때로는 敎權마저 침해되는 놀라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敎育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百年之大計라 해서 國家經綸의 基本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장 확실하게 국가의 未來를 보장하는 投資는 바로 교육이고, 그래서 미약한 개인의 힘으로 育英事業에 헌신하는 사람을 존경과 흠모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반 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農本國으로서의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고 이제 先進國을 넘보는 산업 국가의 대열에 끼이게 된 原動力도 교육에 의존하는 바 컸다는 것이 일반적인 오늘의 評價이기도 하다. 孟母의 三遷之敎는 자녀를 둔 부모의 龜鑑으로 膾炙되어 왔고, 법으로 과외를 금지할 만큼의 지나친 敎育熱은 사회에 회오리 바람이 일게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민을 하는 사람까지도 보아 왔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기관에 자녀를 진학시키려는 學父母의 敎育熱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수용해야 할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방향을 산업 발달에 맞추고 국력을 총 집중시켜 오면서 經濟·社會的 構造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고급 인력의 需要 증가는 高等敎育 人口를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팽창시켜 왔다. 이와 같은 대학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대학의 受容 能力, 특히 私立大學에서는 시설 확충이나 교수 충원, 재정 확대 등 여러 관점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오기도 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4년제 대학은 학생 수 구성면에서 볼 때 私立大學의 占有率이 70%를 넘고 있다. 사립대학은 좁게는 私立學校法에 근거하여 설립·육성되고, 넓게는 교육법과 헌법 등에 그 기반을 두어 보호·발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高等敎育을 시행함에 있어서 國·公立大學이나 私立大學이나 궁극적으로는 國家나 국가를 구성하는 集團이 필요로 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배출한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大學에서 배출된 고급 인력의 受惠者는 바로 國家 自身이며 국가의 미래가 바로 대학에서 배출되는 이들 고급 인재에게 달려 있는 만큼 大學의 問題는 바로 國家의, 國家的 문제라 할 것이다. 私立大學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립대학에 대한 國家的 關心이 커짐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관심이 私立大學의 육성이나 지원이 되지 않고 規制를 위한 수단이 되거나 自律性을 沮害하는 요인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1982년에 발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대학들이 보다 自律的이고 폭 넓은 대화를 할 협의 기구로서 우리나라 大學敎育의 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私立大學을 위한 별도의 협의 활동을 추진한 실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國·公·私立을 불문하고 4년제 대학의 共同 協議體的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1989년에 등록금 동결 운동이 일어나면서 몇몇 私立大學 總長을 중심으로 한 非公式 모임으로 對政府 로비 활동을 벌이고는 있으나 아직 公式的 機構로 출범하지는 않은 것같다.

私立學校法에 규정된 財團의 대학 재정 조달은 상당수의 私立大學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報道되어 왔다. 분명, 敎育이란 目的事業이 본래 崇高하고 바람직한 것이기에 깊은 뜻을 두고 財産을 投擲하여 평생을 몸바쳐 온 사례도 있겠지만, 財團이 大學 運營에 부당한 간섭이나 財政 非理를 저지른 경우도 왕왕 보도되곤 하였다. 과거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상황들은 일반 사회나 학생들에게 不信意識을 심어 왔고 사실 오늘날 표출되는 학생 운동에는 이러한 不信의 表示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私立大學들이 시설 부족과 교수 부족에 허덕이면서 재정 조달의 일환으로 사용해 온 增科·增員政策은 학생 수를 늘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교육의 質的 確保는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겠다. 이제는 寄附金 入學을 公式化하자는 여론과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입학과 관련한 석연찮은 소문들이 社會的 不信으로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등록금 동결 운동이 몰고오는 파문, 대학이 自律的으로 발전할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마련할 財政의 根據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현실의 아이러니를 풀기 위하여는 오늘의 私立大學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침통한 반성을 통하여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斷片的인 생각들

1) 未來指向의 基盤 構築

私立大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青寫眞은 교과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계속적으로 敎科課程을 개발·개정·보완·조정해 오는 것이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진보와 발전, 사회 변화, 산업 변화, 국제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데 비하여 교육과정에서의 수용·발전이 외하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도 높다. "一流大學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는 "××大學에서도 못하는데…"하는 식의 思考方式이 한때 우리나라 대학의 교과과정이 마치 標準 敎科課程에 짜맞추듯 劃一化 되기도 하였다.

그 大學이 목표하는 理想의 추구를 위하여 그 大學이 위치한 여건에 맞추어 대학마다의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과과정이므로 本質的으로 多樣할 수 있고 대학마다의 특성도 알 수 있는 指標가 되는 것이다. 사회 현상이나 현대 과학 기술이 더욱 복합화하고 발전할수록 교과과정의 多樣性은 더욱 커져 갈 것이며, 전통적으로 정해진 영역들의 상관 분야로 짜인 學際的 敎育課程이나 多學問的 特性 또는 새롭게 요구되거나 발전된 知識이나 價値觀들이 체계를 갖고 교육 속에 반영될 수 있는 곳도 敎科課程이다. 일부의 대학에서 大學院 中心, 즉 硏究中心의 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特性이나 自律性이란 관점에서 많은 示唆를 던져 주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다 연구 중심으로만 기울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대학은 자칫 안일하게 넘기기 쉬운 교과과정의 개발·개선에 더욱 힘을 모으고 이를 실현하는 교육 여건의 조성에 一貫的이고 繼續的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은 敎育白書와 같은 연간 基本計劃書나 總長報告書와 같은 연간 運營評價報告書를 작성·공표하여 모든 대학인들이 자기 대학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학 발전에 동참할 등기를 갖게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대학의 신뢰감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豫算이나 決算 또는 大學行政을 公開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이러한 白書나 報告書의 작성에 가능한한 많은 大學人이 參與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敎育白書에는 지난 1년간의 시행 결과와 대학의 현재 위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1년간 또는 수년간에 시행할 발전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마다 연간의 주요 활동 일정을 표시한 學事曆이 外部的·物理的 수단이나 요인에 의해 변경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 나가려는 대학인 모두의 노력은 대학이 스스로의 規範과 秩序를 갖게 하는 첫 걸음이며 對社會的인 信賴感과 대학의 自律性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2) 增科와 增員

學科의 增設이나 學生 數의 增員·調整 등은 현재 국가 발전 방향에 따른 인력 수급 계획의 필요 때문에 문교부의 인가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점차 需要供給의 원칙에 따른 자율 조정의 방향으로 간다고 볼 때 私立大學은 이 면에서 침통한 반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학과나 학생 수의 증가는 근본적으로 막대한 初期 投資와 더불어 교육 운영에도 큰 경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과·증원은 大學財政에 否定的 要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質이 보장된 교육을 위하여 교수 대 학생 수 비율의 최대한도 설정이나 학생 1인당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인식은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投資 效率이나 經常運營이란 관점에서 경제적인 교육 단위나 학생 규모가 있겠지만 이러한 單位나 規模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높아져만 가는 高等敎育費를 단순히 학생 수를 증가시키고 受惠者 負擔이라는 원칙론만 내세워 학생 등록금으로 해결하기에는 이제 한계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日本이나 美國과 같은 선진국의 대학 등록금이 우리나라 대학들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리의 의식 구조나 환경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재정 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

私立大學 재정을 위한 財源의 多元化 문제는 우선 대학교육의 公槪念과 더불어 國家社會的 차원의 문제로서 해결해 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도록 하며 敎育費 마련에 국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고, 適正 財源이 마련되는 터전 위에서 私立大學도 스스로의 증과·증원 정책을 신중히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1989학년도의 대학 등록금 自律化 措置는 그동안 많은 대학인들이 대학 재정의 자율화를 위하여 주장해 온 것이지만, 대학이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준비나 사회적 인식이 결여된 상황에서였기에 시행 첫 해부터 등록금 동결이란 一波萬波의 激浪과 試練을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高等敎育費의 公槪念은 대학교육의 公槪念化

와 더불어 올바른 위상으로 정립되어 갈 일이라 생각되지만, 현재 國立大學과 私立大學의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國家政策上으로도 기본 방침의 설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가 政策的 次元에서 유지·발전시켜 가야 할 분야들을 지정하고, 이중 大衆性이 약하거나 財政 所要가 큰 분야는 國立大學 制度圈 속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自立 可能性이 큰 분야는 주로 私立大學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립대학들도 이러한 면에서 증과·증원보다는 자체적 정원 조정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며, 政府에서는 증과나 증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보다는 財政的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권장을 통해 실효를 거두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3) 私立大學間 連繫活動 强化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大學의 總體的 協議體로서 國·公·私立을 불문하고 高等敎育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고등교육과 관련한 깊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 결과의 확산, 대학 평가를 통한 대학 발전의 기틀 마련, 대학교육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이의 실현을 위한 각종 로비 활동, 세미나, 학술 회의 등을 통한 대학간 정보 교환과 대화의 광장 마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國立과 私立이라는 설립 배경과 설치 근거가 다른 두 집단의 共同 代辯者로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는 中立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私立大學들은 관계법이나 관행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문제와 이익을 더욱 강도 높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강력하게 대변·집행해 갈 별도의 구성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私立大學의 自律性, 특히 公敎育 槪念을 바탕으로 재정 자립을 위한 활동이나 사립대학의 지위 향상과 상호 교류, 사회적 유관 집단과의 협력 체계 증진 등 공동 관심사의 연계 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 實質 敎育費와 登錄金

首都圈 人口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십수년간에 걸쳐 서울에서의 4년제 대학 신설은 불허되었고 증과·증원은 최대한으로 억제되어 왔다. 적극적인 인구 분산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 밖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지방에 분교를 두어 대학의 확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결과 京畿, 江原, 忠淸 일원에 상당수의 분교가 개설되고 몇몇 대학에서는 대학 본부까지도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캠퍼스 이전과 분교 설치는 서울 지역 학생의 抵抗 내지는 誘引策으로 통학 버스를 운행함으써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질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등록금으로 통학 버스 운영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타지역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 통학 버스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그러하지 못하다. 물론 이러한 버스 운영도 간접 교육비로 포함시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질 교육비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學費 減免이란 이름의 校內獎學金은 전적으로 학생 등록금에서 염출된 항목으로 그 비중도 크다.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또는 高價 敎育 裝備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들은 적절한 수준으로 꼭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와 같은 비용을 교육의 1차적 受惠者인 학생들에게 實質敎育費란 명목으로 전부 징수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88~'89 학년도에 對政府 建議案으로 이미 제시하고 있거나 제시하려는 사항들이 실현을 볼 경우, 私立大學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이 건의들이 받아 들여지고 제도권 속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大學敎育에 대한 國民的 認識이 설 때에나 비로소 실현되리라 여겨진다. 국민 여론의 조성은 한두 사람의 주장이나 단편적 시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汎大學人, 특히 私立大學人 모두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弘報와 理解를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財團과 財團觀

私立大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모든 지원이 財團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재단은 大學의 어버이와 같은 위치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어

버이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은 끝없는 一方的 關係이듯 재단은 大學을 키우고 가꾸어 감에 있어 忍耐와 寬容 그리고 精誠을 다하는 어버이적인 基本的 立場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여러 사립대학에서 재단을 성토하고 심지어는 물러가라는 극렬한 구호와 시위까지도 동원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로 財團이 本來的 使命을 잊고 대학을 경영함에 있어 眞實이 결여된 僞裝 내지는 지나친 간섭을 해왔거나 有名無實한 財團인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재단이 자기가 경영하는 대학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大學人의 올바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 지원과 애정을 심어가는 健全한 財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의 大學社會가 아무리 소요스럽고 무질서한 언행이 혼재한다 해도 毅然하게 우뚝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길이 존경받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럴 때 재단의 위엄도 살아날 것이며 재단에 대한 大學人의 존경 의식과 財團觀도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갈 것이다.

6) 大學活動의 多樣化와 質的 高級化—自救的 努力

大學의 본래 사명인 敎育·硏究·奉仕는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萬物相式展示로서가 아닌 內實 있는 敎育, 미래를 가늠하고 眞理의 追求와 더불어 인류 사회를 밝혀주는 硏究 그리고 대학이 상아탑적 학문 탐구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숨쉬며 사회를 이끌어 가는 奉仕의 役割 등이 모두 다 중요하다. 이러한 대학 활동들을 더욱 多樣化하고 高級化시켜 감으로써 大學은 社會的 信賴感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발전에 대한 社會的 呼應을 용이하게 얻게 될 것이다. 이들 대학 활동의 활성화 여부는 바로 大學이 처한 현재의 능력을 표시한다 하겠으며, 大學이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과감한 탈출과 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도전에 대한 大學人들의 결연한 의지의 집약이 우선의 과제라 하겠다. 대학이 學問的 秀越性으로 그 聲價를 올리면서 조화 있게 대학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 희생,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룩할 수 없다. 대학인 스스로의 마음가짐은 물론이거니와 國家的 次元의 眼目과 政策 그리고 國民意識이 이러한 대학 활동의 당위성을 민족 생존과 번영의 근본으로 인지되는 수준이 되도록 교육하고 알려야 할 책임도 대학 스스로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私立大學과 國立大學을 구분할 수도, 할 필요도 없지만 私立大學으로서는 설립 이념이나 地域·環境的 특성을 살리면서 자유·자율·창조의 주체자로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할 때 효율과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대학 활동의 多樣化·高級化와 관련하여 大學評價制度는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학이 능동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可用資源을 동원할 때 명실상부한 대학 발전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不實企業이 지원을 요청할 때 뼈를 깎는 自救的 努力을 전제로 한 지원이어야 한다고들 한다. 私立大學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외부적 요인의 작용이나 지원이 더 클지도 모르지만 大學 스스로 사회에 공감을 주는 자구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지원을 요청할 때 국가 사회로부터의 인식과 호응이 쉽게 얻어질 것은 명백한 일이다. 大學의 自救的 努力은 바로 대학 활동의 다양화·고급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서 획일적이기보다는 각 대학마다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計劃的·長期的·持續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의 大學政策이나 行政이 劃一, 통제 또는 便宜 위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大學 전체의 共通的 關心事이고 대학들이 보조를 맞춘 連繫 活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맺는 말

未來는 흔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創造하는 것이라고 한다. 私立大學의 미래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좋고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하도록 하려는 자체적 노력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敎育者의 屬性이라 할 奉仕·獻身의 精神이 眞理를 향한 創造的 精神과 결합될 때 진정한 大

學人의 精神, 大學의 참 모습이 具象化되고 기대할 만한 未來가 約束된다고 할 것이다. 私立大學이 처한 현실이 궁핍하다 해서 너무 臨機應變的으로 현실에만 집착한다면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해질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일진대 大學은 국가의 미래를 바로 내다보고 사회를 선도해 갈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主張하는 權利와 더불어 솔선 수범하여 완수하는 責任意識이 함께 충만된 大學社會, 거기에는 常識이 大學 運營의 大道이며 正道일 것이다. 私立大學이라 해서 특수한 상황 인정이나 特惠的 待遇를 기대하기보다는 올바른 미래의 창조를 위한 교육과 연구와 봉사에 全大學人이 合意的 共感帶를 형성하는 데 무엇보다도 충실하면서 또 충실해야겠다는 私學의 位相을 내외에 闡明하고 일보일보 實踐해 나갈 때 私立大學의 自律性 확보는 물론 진정한 發展이 뒤따를 것이다. *